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박동진¹, 김송미²

¹한양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²도시사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Academic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Dongjin Park¹ and Songmi Kim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yeong University

²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shisha University

²Corresponding author: matumism0730@gmail.com

Received June 7, 2021; Revised June 21, 2021; Accepted June 21, 2021

ABSTRACT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 1,19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들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돕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academic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data of 1,197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8th year survey (2018)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while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adaptatio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were found to mediate these relationships sequentially, confirming a partial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ays to help multicultural adolescents adapt to their studies and improve their overall quality of life were sought and discussed,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ademic adaptation,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1. 서론

청소년들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교우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며,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준비해나간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는 성공의 경험은 물론이고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학업이었으며¹⁾.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업이었다^{2,3)}.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이 겪는 때라고 할 수 있다⁴⁾. 그러나 학업은 청소년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라 할 수 있다⁵⁾. 학업에서는 주로 지식을 익히기 위하여 공부하는 학습적인 측면이 특히 강조되기는 하나, 청소년은 학업을 통해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함께 학업을 하는 또래와의 관계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고,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업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학업수행의 어려움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학교 생활에서는 학교성적이 주요평가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학업문제 중 ‘학습부진’은 청소년 자신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⁶⁾. 학업적응에 있어서 문제는 학습측면에서의 문제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학업부적응으로 인해 학습측면 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영역이 나타나기 때문이다⁶⁾.

다문화 청소년들은 비다문화 청소년들에 비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요 교과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⁸⁾, 이 어려움이 심한 경우 학업중단을 선택하기도 했다⁹⁾.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특히 학업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는데^{10,11)},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특히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학업에서의 문제에 대해 시급히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업에 적응하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의 인지발달차원에서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래의 직업이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¹²⁾. 즉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성공적인 학업적응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부분인 것이다. 학업적응은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으로 학습자가 학교의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수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는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¹³⁾. 또한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학생이 인지적·동기적 참여과정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학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학습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통제하며, 학습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행동을 포함한다¹⁴⁾.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학업적응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 학교생활적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다문화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중문화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적응하는지를 말한다¹⁶⁾.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인식정도와 수용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중에 많은 수는 한국에서 출생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상이 외국문화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이들은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의 두 가지 문화에 모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경험하는 한국문화와 외국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 상황을 이중문화로 지칭할 수 있다¹⁸⁾. 단일문화 정체감을 갖는 경우보다 이중문화 정체감을 갖고 있는 경우 심리적으로 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¹⁷⁾, 이중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외국문화와 한국문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통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Berry¹⁹⁾는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인 문화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다고 보았다. 이영주, 박문경, 이수경²⁰⁾은 Berry²¹⁾의 문화적응이론을 재구성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문화와 외국문화 각각에 대한 수용태도를 바탕으로 외국문화 친밀형, 한국문화 친밀형, 이중문화 친밀형, 이중문화 소외형으로 구분하여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

고 친밀한 태도를 취할수록 문화적응에 긍정적이었으며, 진은영^[22]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중문화 속에서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 심리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학업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2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았으며^[24], 자아존중감이 학교규칙이나 수업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학교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25].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 역시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6], 특히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게 가질수록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는 청소년들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경험인데, 다문화 청소년들이 교우관계에서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29]. 이를 고려할 때, 다문화 청소년의 부정적인 교우관계는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긍정적인 학업적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또래들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30],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교우관계가 학업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먼저 박동진, 김송미^[31]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혜영^[32]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한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윤진, 윤창영^[33]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샤룬^[34]에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 및 친구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중문화가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예측하는 요인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는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지원하는 데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는데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를 종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이들 변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거쳐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가 각각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을 매개하는 경로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를 살펴볼 뿐 아니라 이를 통합하여 이중적인 매개효과를 하나의 통합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를 교우관계가 매개하는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이다. 이 패널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을 비롯하여 중도입국 청소년과 외국인자녀 등이다. 이 조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정하여 조사하고자 한 본래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모집 분포에 있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주요대상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³⁵⁾. 이 패널조사는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참여자는 총 1,197명이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 587명(49.0%), 여(51.0%), 연령은 17세 1,064명(88.9%), 16세 90명(7.5%), 18세 39명(3.3%), 19세 3명(0.3%), 20세 1명(0.15), 부모 중 외국인 여부는 모 1,154명(96.5%), 부 37명(3.15), 둘 다 외국인 4명(0.3%), 둘 다 한국인 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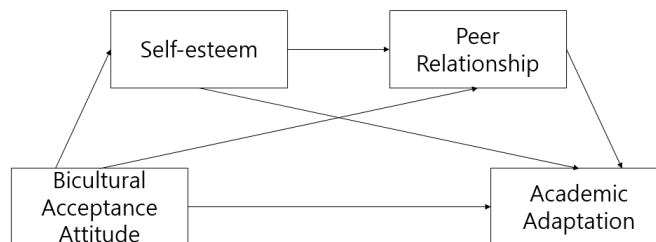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8차년도 조사(2018)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별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이중문화 수용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총래, 홍진주³⁶⁾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

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나는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이다. 이는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78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3.2 학업적응

학업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남³⁶⁾의 학교적응척도 중 학업영역에서 발췌한 총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는다”,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생님이 내주신 어려운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이다. 이는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87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²³⁾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9개 문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다”이며, 이 중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73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3.4 교우관계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남³⁷⁾ 및 황여정, 김경근³⁸⁾의 문항을 발췌 및 수정·보완하고 양계민 외³⁵⁾가 추가한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학교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우리학교 친구들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준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과 방과 후에도 어울린다”,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이다. 이는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값은 .92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자료를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3.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측정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문제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에서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2.0에서 Hayes³⁹⁾의 PROCESS macro 3.3의 모델 6을 사용하였고,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³⁹⁾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리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활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에서의 간접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학업적응, 자아존중감, 교우관계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살펴보았으며, 왜도, 첨도의 점수를 살펴보고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측정변수의 왜도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 절대값이 10을 초과하지 않아 Kline^[40]이 제시한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학업적응,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 학업적응, 자아존중감, 교우관계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716~.825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213~1.397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and correlation analysi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ademic adaptation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N		1,197	1,197	1,197	1,197
Mean		29.19	13.91	30.64	16.20
SD		4.19	3.16	5.83	2.90
Skewness	Statistics	.07	-.24	.06	-.62
	S.E	.07	.07	.07	.07
Kurtosis	Statistics	.84	.10	-.58	.72
	S.E	.14	.14	.14	.14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ademic adaptation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1			
Academic adaptation		.27***	1		
Self-esteem		.36***	.43***	1	
Peer relationship		.37***	.44***		1

*<.05, **<.01, ***<.001

3.2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에 대해 각각의 경로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4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구체적으로 분석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교우관계가 동시에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4단계에서 확인되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효과의 수준(β)이 1단계와 비교했을 때 감소되어야 매개효과

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 때 4단계에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는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가 부분매개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매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Sequential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in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academic adaptation

Step	Outcome variable	Predictor variable	B	S.E	β	t
1	Academic adaptatio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004	.0210	.2656	9.5228***
		F=90.68, p<.001, R-squared=.070				
2	Self-esteem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4983	.0376	.3581	14.5173***
		F=175.77, p<.001, R-squared=.128				
3	Peer relationship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1500	.182	.2167	8.2626***
		Self-esteem	.2068	.0130	.4156	15.8484***
		F=237.00, p<.001, R-squared=.284				
4	Academic adaptatio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0518	.0208	.0686	2.4903*
		Self-esteem	.1430	.0160	.2637	8.9440***
		Peer relationship	.3057	.0322	.2805	9.4835***
		F=134.64, p<.001, R-squared=.252				

*<.05, **<.01, ***<.001

먼저 1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0.68, p<.001). 그리고 개별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학업적응에 대한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2656, t=9.5228, p<.001$).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5.22, p<.001). 그리고 개별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3581, t=14.5173, p<.001$).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대한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37.00, p<.001). 개별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교우관계에 대한 영향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167, t=8.2626, p<.001$). 자아존중감의 교우관계에 대한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4156, t=15.8484, p<.001$).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4단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교우관계의 학업적응에 대한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34.64, p<.001). 개별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학업적응에 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beta=.0686, t=2.4903, p<.05$), 자아존중감($\beta=.2637, t=8.9440, p<.001$), 교우관계($\beta=.2805, t=9.4835, p<.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세 개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Table 3). 이를 위해 Shrout and Bolge^[41]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표본의 수가 같은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매개효과 모형에서의 개별 간접효과와 표준오차를 재추정하는 방법이며,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CI)을 나타내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먼저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0713, 95% Bias-corrected CI=.0478~.0974).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학업적응을 높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를 통해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459$, 95% Bias-corrected CI=.0280~.0686).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좋아져 학업적응을 높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15$, 95% Bias-corrected CI=.0220~.0424).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되고,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좋아지며, 이에 따라 학업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도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Bootstrapping results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Bootstrap estimate		95% bias-corrected CI	
	B	S.E	BootLLCI	BootULCI
BA → SE → AA	.0713	.0126	.0478	.0974
BA → PR → AA	.0459	.0106	.0280	.0686
BA → SE → PR → AA	.0315	.0052	.0220	.0424

BA: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A: academic adaptation, SE: self-esteem, PR: peer relationship

* $<.05$, ** $<.01$, *** $<.001$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거쳐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앞서 참고한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검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ry^[19]는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문화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우 적응을 이룬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하며, 문영희, 안은미^[17], 진은영^[22],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문영희, 안은미^[17]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인식정도와 수용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적응이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교 적응의 하위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업적응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지만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20]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적응에 있어서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고 친밀한 태도를 취할수록 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은영^[22]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중문화 속에서 이를 적절히 수용하면 심리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업적응은 심리사회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적응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학업적응이 더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송경아²⁵⁾, 이신숙²⁴⁾, 전수정, 윤혜미²⁶⁾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학업적응이 전반적인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적응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학업적응도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업적응이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학교적응 중 학업적응 부분에 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를 교우관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우관계는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게 가질수록 또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오경화²⁷⁾와 이지연, 정익중, 장유다, 주영하³⁰⁾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업적응이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영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학교적응 중 학업적응 부분에 대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거쳐 학업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업적응의 관계를 부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대해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증진되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이는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경로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습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 속에서 이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 속에서 문화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²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중문화에서 이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문화교육, 체험을 통한 학습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⁴²⁾. 또한 부모의 출신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 부모가 지도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⁴³⁾.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지원하는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으며, 교우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는 결국 학업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이 긍정적인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활동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또래관계증진프로그램, 또래상담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⁴⁴⁾.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거쳐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경로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는 데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의미하나,

이 패널조사의 주된 대상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외에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를 시행하였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장기간에 걸친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의 변화궤적을 살펴본다면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김의철, 박영신,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Ⅱ):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1호, pp.63-109, 2008.
2. 김수주,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 이희영, “학습효율성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습습관, 학습태도, 학업성취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 오선향,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 정선주, 김정숙, 최희철, “학업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업자아개념과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제2권 제2호, pp.77-91, 2017.
6. 김동일, “학업상담을 위한 학습전략프로그램”, 학지사, 2005.
7. 조운동, 강은주, 고호경, “2011년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다문화, 탈북 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성취특성 분석”, 학교수학, 제15권 제1호, pp.179-199, 2013.
8. 박동진,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9호, pp.175-184, 2019.
9. 오수정, 변수정,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125-136, 2020.
10. 박희훈, 오성배,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2권 제2호, pp.35-57, 2014.
11. 유승희,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권 제5호, pp.229-254, 2020.
12. 이래혁, 장혜림,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행복감의 매개효과-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제16권 제4호, pp.17-26, 2018.
13. 강유경, “초등학생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생활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4. 문은식, 김충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pp.219-241, 2002.
15. 성선진,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 요인의 인과적 관계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6. 유창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제13권 제3호, pp.73-107, 2020.
17. 문영희, 안은미,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3호, pp.47-68, 2010.
18. 윤향희,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우관계와 이중문화 적응,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9.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Vol. 46, No. 1, pp. 5-34, January 1997.
20. 이영주, 박윤경, 이수경,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5

호, pp.347-372, 2017.

21. J. W. Berry,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pp. 9-25, 1980.
22. 진은영,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응과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32호, pp.303-326, 2015.
23.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24. 이신숙, "중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호, pp.29-55, 2015.
25. 송경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6. 전수정, 윤희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제24호, pp.153-179, 2013.
27. 오경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제9호, pp.83-97, 2011.
28. 박동진, 이지연,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6권 제3호, pp.73-92, 2019.
29. 박미숙, 이미정,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0권 제3호, pp.149-174, 2014.
30. 이지연, 정익중, 장유다, 주영하,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3호, pp.1-25, 2015.
31. 박동진, 김송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6권 제2호, pp.267-273, 2021.
32. 김혜영,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다문화수용성이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과 문화다양성 연구, 제12권 제1호, pp.87-108, 2020.
33. 신운진, 윤창영, "기초연구: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또래관계 및 이중문화수용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제14권 제2호, pp.1-14, 2010.
34. 박사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5.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8-R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36. 노충래, 홍진주,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서울, 경기지역 몽골충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2호, pp.127-159, 2006.
37. 김정남,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5권 제3호, pp.497-517, 2013.
38. 황여정, 김경근,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2호, pp.181-203, 2006.
39.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2013.
40.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2015.
41. P. E. Shrout, and N. 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 7, No. 4, pp. 422-445, December, 2002.
42. 김혜정, 유진이,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7권 제4호, pp.17-32, 2009.
43. 조은영, 이신동, "다문화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7호, pp.377-396, 2020.
44. 이경아, 유성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뇌교육연구, 제14권, pp.1-23, 2014.